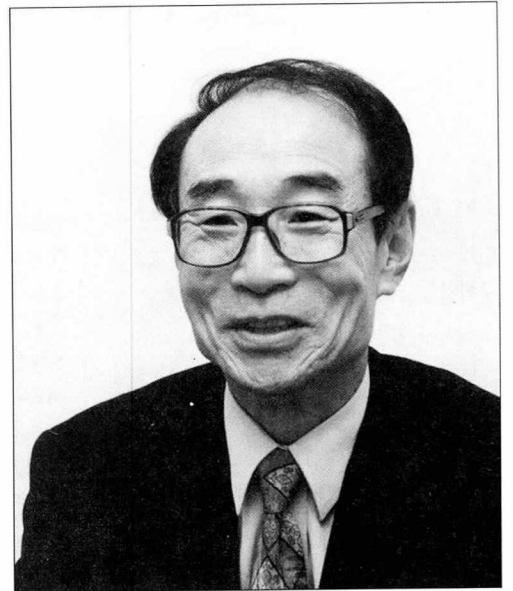


“상품성 있는 실용연구에 박차”

(재)한국출판연구소 새 이사장에 윤청광씨



윤청광 신임 이사장.

“출판은 본격적인 연구대상이며 그 실질적인 역할을 맡은 연구소의 활성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구소에서 실용적인 ‘상품이 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재)한국출판연구소 제5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윤청광씨(58, 동국출판사 대표)는 설립 12년째인 현재의 연구소를 ‘실용화의 도약기’로 자리매김할 것을 밝혔다.

“10여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쌓아온 출판이론의 기초자료 축적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정보를 내놓는 연구소로 만들겠습니다.”

윤이사장은 3년의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연구과제로 ▲저작권 분쟁 사례연구 ▲인쇄 지불체도의 선진국 사례분석 ▲전자출판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출판환경 연구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분야별 실용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류생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된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의 변화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며,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무르익은 통일 분위기 속에

서 남북출판 교류에 대비한 가격체계·언어 접근·유통시장·세금문제 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이사장은 이 모든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기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까지 임원들이 거의 구걸하다시피 마련한 찬조금으로 어렵게 어렵게 연구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지금의 기금으로는 연구소를 유지하기에만도 힘에 부칠 뿐입니다. 최소한 20억원 정도의 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소의 열악한 상황은 4명의 상근직원이 직장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 연구원 확충과 전문연구원 육성, 연구소장제 실시 등 연구소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확

실히 인식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출판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며 그 실질적인 역할을 맡은 출판연구소의 활성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요. 또 연구소에서 ‘상품이 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테마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윤이사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과

상무이사, 책의해 조직위원회 기획홍보 간사 등 출판관련단체에서 두루 활동한 ‘출판계 마당발’로 통한다. 지금은 방송작가협회 이사, 불교 주간지 《법보신문》 논설위원, 금성출판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으면서 방송과 집필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고승 열전》 등 30여권의 저서를 펴냈다.

— 김지원 기자

출판계 소식

출판계에도 홍수 피해 커

경기지역 파주·일산 소재 일부 창고 침수

지난 8월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출판계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한 들녘출판사와 파주시 교하동 고려원(대표 김낙천)의 창고가 침수돼 각각 5만 5천부, 10만부 정도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고려원은 아적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들녘 창고가 있는 대화동 일대의 한길유통회사와 팀매니아, 아우네 인쇄소 등 출판

관련업체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 이 지역에는 홍수 조절이 가능한 배수펌프장 시설이 있음에도 폭우에 대비한 수문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제’였음이 드러나 침수 피해자들은 고양시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요구 등 공동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홍수피해를 계기로 출판인들은 임치물로서 책에 대한 보증보험 조항 마련 등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출판인회의’ 결성을 위한 모임

단행본 중심 출판사 대표들은 지난 7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국출판인회의(가칭) 위원회(주비위원장 김언호 한길사 대표)를 결성했다. 이날 참여한 출판사는 한길사·문학동네·푸른숲·열린책들·동녘·이레 등 24개사. ‘주비위’는 ‘출판인회의’의 출범을 위해 8월 중순 ‘유통발전 대토

론회’를 갖고 9월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다음 10월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출판유통 한양 과 합병

한국출판유통(주)(대표이사 허창성)이 지난 8월 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양출판판매(주)(이하 한양)와의 합병을 선언했다. ‘한양’의 순자산평가액은 (-)6억8천만원. 잠

식당한 자본금 8억원까지 합산하면 총결손액은 (-)14억8천만원이다. ‘한양’은 금년 8월말까지 순자산평가액을 지구노력으로 해



지난 8월초 한국출판유통(주)과 한양출판판매(주)가 합병을 선언했다.

소하고 3억원의 자기자본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통합에 합의했다.

‘한글’개발 재개 선언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민화 벤처기업협회장)와 한글과컴퓨터사(대표 이찬진, 이하 한컴)가 지난 7월 20일 한글 개발 재개를 선언했다. ‘한컴이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로부터 1백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고 경영을 분리하는 조건으로 한글을 되살리기로 한 것. ‘한컴’은 광복절에 맞춰 ‘한글 815’를 시판,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자출판물 인증제 공청회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는 지난 7월 23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시행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경일 교수(김포대학 전자출판과)가 ‘전자출판물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을 점검하고 김희락·피광준·이기성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5회 독서진흥상 모집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이하 출협)는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5회 독서진흥상’ 후보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9월 5일까지며, 접수 및 문의처는 ‘출협’ 사무국(02-735-2701).

창작·번역지원 및 장학생 선발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98년도 문학인 창작지원 대상자에 정결별씨 등 16명, 한국문학번역지원에 이승재·프란시스 코 카란사팀 등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5일 교보빌딩 대강당에서 거행되며, 창작지원에 9천5백만원, 번역지원에 1억1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